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 -인권, 반편견·반차별교육을 중심으로-

서보라* · 박찬석**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초등 고학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며,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의 총 3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전시 A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26명에게 1년에 걸쳐 적용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인권교육이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반편견·반차별교육, 초등 고학년

1. 서론

1) 연구의 출발점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부터 식습관, 성격, 종교, 가치관이 서로 다른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다양

이 논문은 저자의 2015년 공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전매봉초, 다문화교육, sbrz6646@nate.com

** 공주교대, 도덕교육, pcskmy@hanmail.net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죄책감 없이 성소수자나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직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신들의 행동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권의 침해, 문화적 갈등상황과 더불어 최근에는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도 점차 늘어나 학생들이 겪는 다문화적 갈등과 차별적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학교와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가해지는 여러 불편한 시선들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교육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더 중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불편한 시선과 차별이 자신과 생김새, 취향, 성격 등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해지기에 다문화교육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들의 변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유,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변화’에 그 목적을 둔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문화다양성’, ‘인권의 개념을 알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가치·태도를 지니는 인권감수성’, ‘내가 가진 편견을 줄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가치·태도를 갖는 반편견·반차별’의 방향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지속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하려고 하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 일상에서 인권 의식과 반편견·반차별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유’에 그 목적을 둔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다문화교육에 참고할 만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1년 간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보완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통일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도 ‘다른 나라의 춤, 노래 배우기’와 같이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진정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행해지는 다문화교육의 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후, 논문의 제언부에서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

문화란 한 인간 집단에서 공유되는 관념, 상징, 행동,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이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 집단이 그들의 생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상징 제도 혹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로 정의되기도 한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165). 인류학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간집단에 고유한 행동과 느낌, 사고, 행위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공유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다원성(plurality)에 대한

가정으로 문화 즉 삶의 방식은 지역,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두 번째 가정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문화는 삶의 진실성(authenticity)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인류학적 문화개념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은 상대방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데 그 초점을 두게 된다(장원순, 2003: 178).

이외에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 김선미(2003)는 다문화교육은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인종, 직업 등으로 인한 다양하고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상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상호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찬석(2010)은 다문화교육을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बैं크스(Banks)는 그의 저서에서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하였고(Banks, 2011: 3), 베넷(Bennett)은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민주주의의 신념과 가치에 기초를 두고 상호 의존성이 높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안에서 문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Bennett, 2011: 2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며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화 간 공존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교육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이며, 민주적 가치를 전체 구성원에게 확장시키는 교육이고, 소수 집단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이다(전세경 외 2010: 59).

2) 다문화교육의 방법: 인권교육

(1)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자명하고 보편적인 자연권(natural rights)으로 인종,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되어야 하는 불가양의 권리를 의미한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289). 오경석 외(2011)는 인권을 보통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정의에는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인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로서의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람의 사람다운을 실현할 권리라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000: 11; 이종태 외, 2005: 23에서 재인용).

(2) 인권교육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리스터(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태 외, 2005: 43). 리스터가 말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의 개념, 인권의 역사 등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의 교육을 말하며, ‘인권을 위한 교육’은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

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종태 외, 2005: 43-44).

즉,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관한(about) 교육’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for) 교육’이어야 하고 ‘인권을 통한(in through) 교육’이어야 한다는 리스터의 주장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구정화 외, 2004: 17-18; 정해숙 외, 2011: 42에서 재인용).

(3) 다문화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에는 인권이 포함된다. 다문화교육의 시작은 흑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권 운동이었다.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과 행동이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에는 평등권이나 인권의 존중이 포함된다(어석원, 2011: 31). 실제로 베넷은 그의 저서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 네 가지 중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시켰다(Bennett, 2011).

표 1. 다문화교육의 내용체계

	1차 개념	2차 개념	3차 개념
다문화 교육 내용	문화다양성 (cultural diversity)	문화	문화의 의미, 문화의 특성, 문화의 기능, 문화의 표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문화 다양성	인종, 민족, 계급, 지역, 종교, 성, 세대, 전통, 국가, 예술, 대중, 과학
		간문화적 상호작용	이해, 존중, 협력, 승인, 관용, 인정/ 차별, 편견, 억압, 불평등/ 동화, 변형, 상호학습, 발전
	통합성 (unity)	인권	인간 존엄권, 생명권, 정의권, 평등권 자유권(거주이전, 종교, 사상, 언론, 학문, 양심, 출판), 참정권(피선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사회권(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건강권), 문화권
민주주의		인민주권,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 대화와 토론, 합의, 관용, 존중, 공공선, 정치과정, 정치참여 및 문제해결, 법치주의(적법절차)	

자료: 서강식·장원순(2007)

둘째, 현재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통합의 원리로 인권이 활용될 수 있다. 장원순(2004)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크게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위한 내용과 통합(unity)을 위한 내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내용은 다시 문화, 다양성 그리고 간문화적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통합을 위한 내용은 인권과 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장원순, 2004; 서강식·장원순, 2007: 29에서 재인용).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간의 이해, 존중, 승인, 공존을 의미한다면, 통합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에 속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은 단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시하는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출 경우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 오해와 편견에 근거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존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개념이 통합성이다(서강식·장원순, 2007: 32-33).

특히 다문화교육 내용 중 ‘통합성’에 속하는 ‘인권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데 필요하고 토대가 되는 개념이며(서강식·장원순, 2007: 31),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원활히 상호 작용하는데 기여하는 계몽된 정치적 도덕으로 인종, 국가, 민족, 성, 세대, 종교, 지역, 전통, 집단, 직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자 규칙이다(서강식·장원순, 2007: 36).

셋째, 다른 문화와 옳지 못한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권이 활용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문화 상대주의는 지향하지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문화’와 ‘옳지 못한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학생들이 그 경계에서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문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가 그렇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인권은 ‘다른 문화’와 ‘옳지 못한 문화’를 구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문화와 옳지 못한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다문화교육의 방법: 반편견교육

(1) 편견

편견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며(박찬석, 2010: 142),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판단이나 신념(보통 부정적)으로부터 형성된 태도이다(Bennett, 2011: 127).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상호 연관된 신념의 체제로,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며 행동을 이끌어 내는 특성이 있다. 편견은 하나의 태도이기에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차별은 주로 편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편견이 없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이 불공정한 사회의 관례와 정책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다(Bennett, 2011: 127).

즉, 편견은 근거가 없는 의견과 태도이며,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에 민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

(2) 반편견교육

램지(Ramsey)는 반편견교육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프레이레(Freire)는 반편견 교육의 기본을 ‘자유를 누리는 실제(practice of the freedom)’에 두고 모든 아동들이 자신 및 타인이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지지해주는 비판적 생각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이경은, 2011: 11). 추병완(2012)은 반편견교육을 인종, 민족, 젠더, 종교, 장애 등에 근거한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을 존중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반편견교육에서 ‘반편견’은 기존의

편견, 고정관념, 왜곡, 그리고 다양한 차별주의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였으며 반편견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폭 넓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에 맞설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반편견교육은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편견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불공평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맞설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3) 다문화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반편견교육

문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민족, 인종, 성, 종교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호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과 인간을 중시하는 반편견교육은 다문화교육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뱅크스는 ‘편견감소’를 다문화교육의 차원 중 하나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다른 인종, 민족, 문화 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교수방법과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넷 역시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을 내세우며 성이나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들을 타파하고 인간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와 관련된 올바른 태도와 사회적 행동기술을 발달시킴으로서 반차별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반차별적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Bennett, 2011: 31). 또한 문화와 문화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밑바탕에는 대체로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차별과 억압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유병열, 2011: 95), 반편견교육은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편견해소’와 ‘다양성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실행연구

(1) 실행연구의 의미

실행연구는 ‘실행’과 ‘연구’를 결합한 용어로 현장에서의 실천행위가 곧 연구의 과정이 되는, 다시 말해 실행가가 연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실천을 스스로 탐구해가는 연구방식을 의미한다(강지영·소경희, 2011: 198). 실행연구는 ‘계획-실행-관찰-성찰-재계획’이라는 나선형적 순환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연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강지영·소경희, 2011: 201). 전통적인 실증적 연구와는 달리 실행연구는 예측과 통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실행연구의 주요 관심은 개인의 실재를 개선시키는 데 있다. 실행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라기보다 실재를 개선시키는 것이다(이명숙, 2001: 404).

(2) 실행연구의 목적

실행연구의 목적은 전문적 차원, 개인적 차원, 정치적 차원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전문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실행연구는 수업과 관련된 교사들의 지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전문적 실행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직접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수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실행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교수법을 직접 실행해본 후에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기술하는 특징을 보인다(이명숙, 2001: 205). 반면, 개인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실행연구는 연구의 초점이 교사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에 있다. 여기에서는 교수전략의 개발과 그 증거로서 학습자의 변화에 집중하는 전문적 차원의 실행연구와는 달리 학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사의 변화와 성장, 내면에 주목한다. 한편, 정치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실행연구는 교실 이면에 존재하

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이 야기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를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이명숙, 2001: 205).

즉,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연구는 교사가 연구자가 되어 자신이 생각한 것을 학급에 적용해보고 적용한 결과를 반성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하여 이를 재적용해 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사가 실제로 실행한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실행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장기간에 걸친 다문화교육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얻은 실천적 지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둘째, 실행연구의 방법이 학생들의 변화를 살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1) 교사

교직생활 2년차인 저경력 교사로 2년 연속으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경력이 짧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2) 학생

대전 소재 A 초등학교 5학년 1반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학급 구성원은 남자 14명, 여자 12명을 합해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없다. 학생들의 성향은 보통 5학년 학생들에 비해 순하고 얌전한 편이며 사춘기로 인해 선생님께 반항하거나 대드는 학생은 거의 없다. 생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친구를 심하게 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은 없다. 하지만 특하면 '장애아', '애야'라는 욕을 자주하는 학생, 남학생에게 '게이'라고 놀리는 학

생, 싫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는데도 끊임없이 장난을 치거나 싸움을 거는 학생이 주요 생활지도 대상으로 있으며, 몇몇 학생들은 위와 같은 행동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이 문제는 5학년의 다른 반 학생들과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학기 초부터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연구학급의 학생들에게 1년간 다문화교육을 실행했을 때, 학생들이 학기 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클 것이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초등 고학년 학급에도 연구의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교육은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1학기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2학기에는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4~5월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6~7월에는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를 실행했으며 8월말부터 12월까지의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달라도 모두 친구'를 실행했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주로 관찰과 심층면담, 수업일지 작성, 설문지, 갈무리 공책, 학생의 기록물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관찰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일지는 매 수업이 끝난 후에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학생의 쓴 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에 의문이 들 때 해당 학생에 대하여 1:1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혼합된 형식으로 학기 초, 1학기 말, 2학기 말에 3차례 배부되었다. 1학기 때는 수업 후 소감을 접착쪽에 적도록 했다가 2학기 들어서 매 시간 후 수업 소감을 '갈무리 공책'에 적도록 했다. 학생이 다문화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기록물을 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다. 프로그램은 크게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통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과 반편견·반차별을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방법이자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반편견·반차별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1학기에는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연구학급의 인권 침해적 상황을 해소하고 다문화교육의 토대 즉 '통합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음으로 2학기에는 벵크스의 편견감소, 베넷의 사회정의론을 지향하는 가르침, 그랜트와 슬리터(Grant & Sleeter)의 다문화적 사회정의교육의 방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하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존중', '편견의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반편견교육에 '반차별'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까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차별을 반대, 금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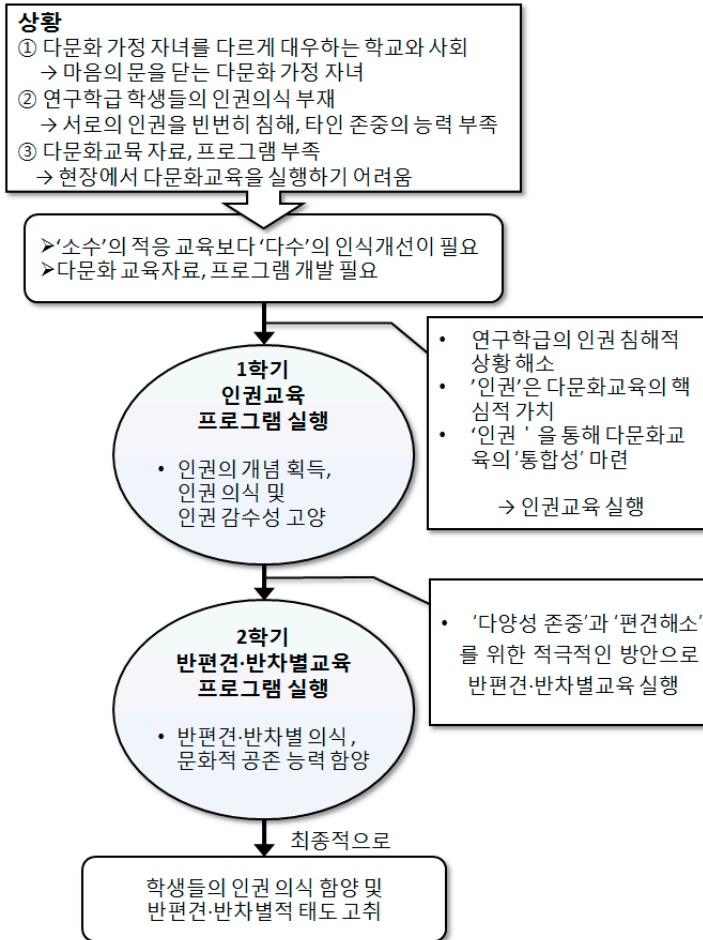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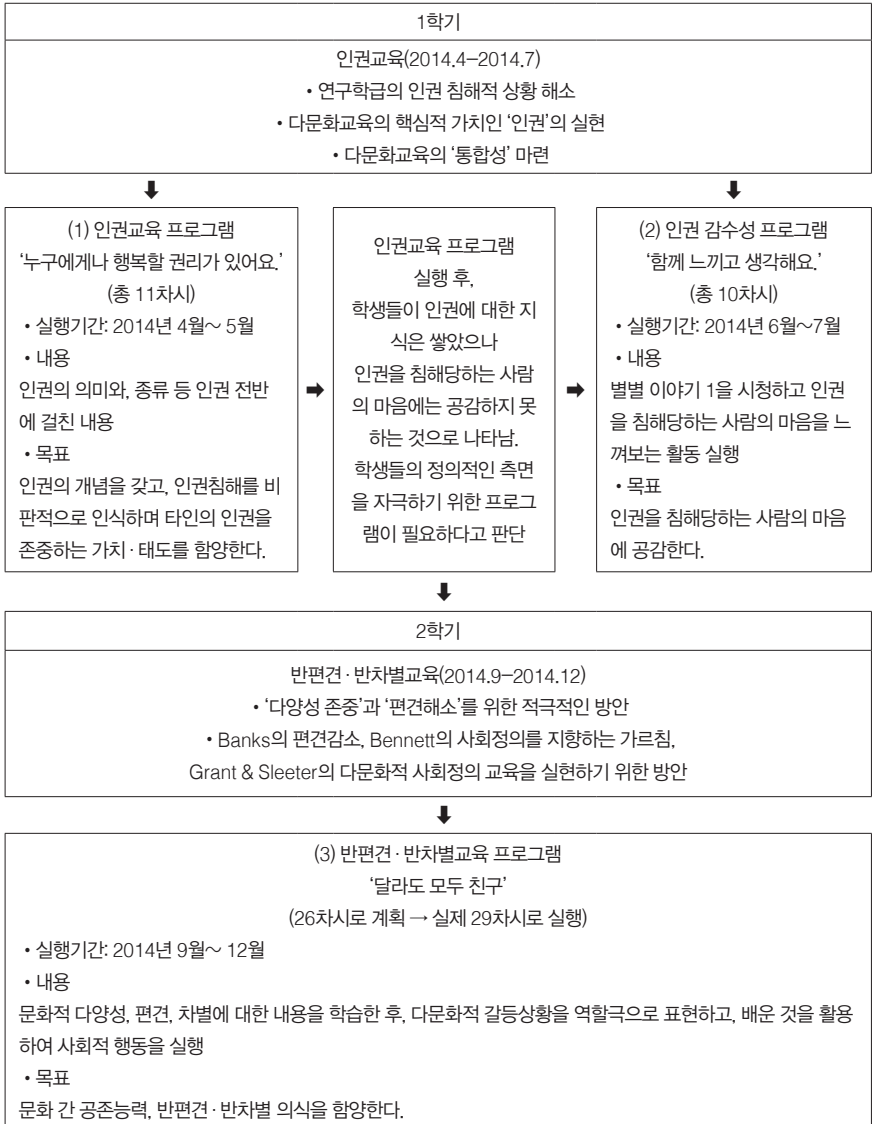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

1년에 걸쳐 실행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1) 인권교육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① 목표

인권교육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가 추구하는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

둘째,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셋째, 생활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를 갖는다.

② 내용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초등 고학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를 참고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11차시로 계획되었으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인권부터 친숙하지 않은 인권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1~8차시에서는 어린이가 가진 권리부터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성 소수자의 인권까지를 학습하게 되며 마지막 세 차시에서는 1~8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인권 선언문’과 ‘인권 나무’, ‘인권 포스터’를 만들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의 차시별 수업 실행 내용

차시	주제	세부 활동	활동자료
1	인권의 의미	① 인권의 의미 알아보기 ② 인권의 발전 과정 살펴보기 ③ 세계 인권 선언 알아보기	• 동영상(What's human rights?, 세계 인권선언문) • 4절 활동지 • 풀, 가위, 사인펜 • 그림카드(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2	어린이 인권	① 권리카드 분류하기 ② 권리의 숨은 뜻 알아보기 ③ 권리 점수와 지킴이 점수 비교하기	• 칠판 부착자료 • 4절, 8절 활동지 • 풀, 사인펜 • 권리카드 20장, 활동지 1, 2

3	어린이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 적어보기 ②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 사례 살펴보기 ③ 어린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축구공 경제학, Don't panic, 시리아 내전 인터뷰, 희망7캠페인) • 4절 활동지, 사인펜
4	장애인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적 어려움 알아보기 ② 편견으로 인한 불편함 알아보기 ③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지하철 장애인 이동의 어려움) • 4절 활동지, 사인펜 • 프레젠테이션(장애인 편의시설, 장애를 가진 화가, 아나운서, 교사) • 신문기사(장애인 차별) • 사진자료(인물사진, 미술작품)
5	여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문제 살펴보기 ② 명예살인에 대해 알아보기 ③ 여성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자료(전죽, 열녀문) • 프레젠테이션(여성인권문제, 명예살인) • 동영상(명예살인 뉴스보도) • 4절 활동지, 사인펜
6	다문화 가정 친구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 가정 친구가 겪을 어려움 생각하기 ② 다문화 가정에 갖는 편견과 차별 생각하기 ③ 영상 시청하고 느낀 점 쓰기 ④ 다문화 가정 친구에게 편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공익광고, 지식채널e, 내 꿈은 국가대표, 나의 작은 영웅) • 4절 활동지, 사인펜, 접착쪽지
7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가 겪을 어려움 생각하기 ②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에게 갖는 편견, 차별이 정당하지 생각하기 ③ 영상 시청하고 느낀 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절 활동지, 사인펜 • 신문기사(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 • 동영상(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뉴스, 사진 한 장의 의미)
8	성 소수자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 소수자의 의미와 종류 알기 ②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생각하기 ③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자료(성 소수자들의 사진) • 4절 활동지, 사인펜 • 신문기사(성 소수자 차별문제) • 동영상(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들, 트랜스젠더 문채은, 동성애자들의 프로포즈를 본 10대들의 반응)
9	인권 선언문, 인권 나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 선언문 만들기 ② 인권 나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차시 활동지 • 8절, 4절 활동지 • 접착쪽지, 유성매직
10~11	인권 포스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 포스터 작품 감상하기 ② 인권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젠테이션(인권 포스터) • 도화지, 채색도구

(2)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① 목표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조금이라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이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주로 인지적 측면에 집중했었다면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은 정의적 측면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려고 한다.

② 내용

본 프로그램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인권 감수성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1~4차시에서 학생들은 별별이야기1에 수록된 인권 영상을 시청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5~10차시에서는 인권 UCC를 제작하면서 1~4차시 수업을 통해 획득한 인권 감수성을 더욱 심화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의 차시별 수업 실행 내용

차시	주제	세부 활동	활동 자료
1	장애인 인권	① ‘낮잠’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영상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동영상(낮잠) • 활동지 • 사인펜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권	① ‘동물농장’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영상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동영상(동물농장) • 활동지 • 사인펜
3	여성 인권	① ‘그 여자네 집’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영상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동영상(그 여자네 집) • 활동지 • 사인펜

4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육다골대녀'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영상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동영상(육다골대녀) • 활동지 • 사인펜
5	UCC 제작 계획	① UCC 주제 정하기 ② 여러 UCC 감상하기 ③ UCC 제작 방법 결정하기 ④ 스토리 보드 짜기	• 동영상 (UCC 예시) • 스토리보드
6-7	UCC 제작(1)	- 계획에 따라 UCC 제작하기	• 스토리보드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8-9	UCC 제작(2)	- 계획에 따라 UCC 제작하기	• 스토리보드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10	UCC 감상	① 6모둠의 UCC 감상하기 ② UCC 제작, 감상 소감 나누기 ③ 가장 잘 한 UCC 뽑기	• 동영상(6모둠의 UCC)

(3)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달라도 모두 친구'

① 목표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달라도 모두 친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문화 사회가 된 우리 사회에서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편견, 차별 없이 대하고 이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기 위한 '문화 간 공존능력', '반편견·반차별 의식 함양'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둘째,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생활 속에서 인종적·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 존중한다.

넷째, 인종적·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 태도를 기른다.

② 내용

본 프로그램은 크게 '정체성 확립', '사회변화', '다양한 문화 이해', '편견·차별 인식', '갈등상황 해결', '사회적 행동'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달라도 모두 친구'의 차시별 수업 실행 내용

영역	차시	주제	내용
정체성 확립	1-2	자신의 정체성 정하기	① 정체성의 의미 알아보기 ② '악어오리 구지구지' 읽고 내용 파악하기 ③ 자신의 정체성 정하기 ④ 자신의 정체성 발표하기 및 다양한 정체성 수용하기
사회 변화	3	다문화 사회	① 다문화 사회의 의미 알아보기 ②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 생각해보기 ③ 다문화 사회의 장점 알기 ④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 생각해보기
다양한 문화 이해	4-5	다른 나라의 문화 (도서관조사활동)	① 조사하고 싶은 나라 정하기 ② 다른 나라의 문화 조사하기
	6-7	다른 나라의 문화 (문화 소개지 만들기) ※ 미술시간 활용	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소개지 만들기 ② 문화 소개지 전시 및 발표하기
	8	우리나라의 문화	① 우리 문화의 특징 알아보기 ② 우리 문화의 장점 찾아보기 ③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우리 문화 소개하기
	9	'문화'의 이해	① 문화의 의미 알아보기 ② 문화의 특성 알아보기 ③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
	10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	① 일상문화의 의미 알아보기 ② 주변의 일상문화 생각해보기 ③ 나의 문화 지도 만들기
	11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① 명예살인, 여성할례에 대해 알아보기 ② 모둠 토론하기 ③ 토론 결과 발표하기
편견· 차별 인식	12	편견과 차별	① 편견, 차이, 차별의 의미 알아보기 ② 우리 주변의 편견 생각해보기 ③ 편견의 위험성 알아보기
편견· 차별 인식	13	편견을 다르게 생각하기	① 내가 가진 편견 생각해보기 ②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생각해보기 ③ 편견을 다르게 생각해보기
	14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 1	① 피부색으로 사람을 가를 수 없다는 것 알기 ② 내가 가진 편견 생각해보기 ③ 내가 가진 편견의 잘못된 부분 찾아보기

편견·차별 인식	15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 2	① 한국인을 차별하는 영상 시청하고 느낌 나누기 ② 편지를 쓰기 위한 개요 작성하기 ③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16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미디어	① 미디어에서 피부색에 대한 편견 발견하기 ②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만들기 ③ 발표하기
	17-18	차별 금지 포스터 만들기 ※ 미술시간 활용	①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② 모둠 토의하기 ③ 포스터 그리기
갈등 상황 해결	19	갈등상황 해결하기 1	① 인종차별과 관련된 갈등상황 제시하기 ② 역할극 준비하기 ③ 역할극 발표하기
	20	갈등상황 해결하기 2	① 식생활과 관련된 갈등상황 제시하기 ② 역할극 준비하기 ③ 역할극 발표하기
	21	갈등상황 해결하기 3	①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갈등상황 제시하기 ② 역할극 준비하기 ③ 역할극 발표하기
	22-23	갈등상황 해결하기 4	① 별별 이야기 2 '사방사방 사랄라'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정리하기 ③ 역할극 준비하기 및 발표하기
사회적 행동	24	계획 세우기	• 배운 내용을 실천할 방법 생각하기 • 생각한 방법에 따라 실행계획 세우기
	25-26	준비 및 실행하기 1	• 사회적 행동을 위해 사전 준비하기 및 실행하기 (벽보 만들기, 피켓 만들기, UCC 찍기 등)
	27-28	준비 및 실행하기 2	• 사회적 행동을 위해 사전 준비하기 및 실행하기 (벽보 만들기, 피켓 만들기, UCC 찍기 등)
	29	느낌 나누기	• 활동소감 공유 및 자기반성

5. 프로그램 실행 결과

1)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가

1학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문지와 학생 개별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네 가지 이다.

첫째,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와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두 프로그램 모두 대체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었으며 수준 또한 적당했다.

둘째, 대다수의 학생들이 협동학습지를 선호하지만 독립적인 학생들은 개별학습지를 선호한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할 때 협동학습지를 주로 이용하되, 그 안에서 개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연구학급의 학생들은 활동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모둠 활동지를 좋아하는 이유도 모둠원들과 이야기하며 활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그림 그리기, 분류하기, 공작활동, UCC 만들기 등의 ‘활동’을 좋아한다.

넷째,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주로 ‘~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수업소감을 적었지만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인물의 마음, 차별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여 소감을 쓴 경우가 많았다. 또 면담 결과, 17명의 학생들이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2)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평가

2학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문지와 학생 개별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달라도 모두 친구’는 대체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었으며 수준 또한 적당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편견인지와 편견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을 받은 후, 전보다 자신이 가진 편견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

셋째, 학생들의 편견감소에는 ‘다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 ‘단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흑인과 백인, 황인이 서로 같다는 것,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이 감소하였다.

넷째, 역할극 수업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 본 것은 이해된다.’는 공자의 말처럼 학생들은 역할극을 직접 해볼 때, 차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역할극’을 뽑은 6명의 학생들은 모두 ‘역할극을 통해 차별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역할극 수업 후에 학생들이 적은 소감의 대부분은 차별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다섯째, 1년간의 다문화교육 후에도 학급의 1/3정도가 차별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차별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프로그램 실행 후 학생들의 변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권교육,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학생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서술하려 한다. 학생들의 기록은 학기말 개방형 설문조사와 마인드맵,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인권, 편견, 차별, 다문화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1년간의 교육을 통해 연구학급의 학생들은 인권, 편견,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또래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넓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마인드맵 그리기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 다문화교육을 받지 않은 학급과 연구학급이 ‘다문화’와 ‘인권’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그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인권에 대해 아는 학생은 1~2명뿐이었으며 이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이 1년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이다. 인권에 관련된 수업은 1학기에 진행했다. 하지만 2학기의 수업 소감에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은 학생들이 있었고, 한 모듬은 마지막 사회적 행동하기 수업에서 ‘인권 캠페인 활동’까지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인권’이 학생들의 기억에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1년 간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적은 소감의 일부 내용이다.

박○○: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황보○○: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고쳐야겠다고 느꼈다.

천○○: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박○○: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인권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전, 학생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나 수업을 통해 어린이에게, 장애인에게, 성소수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수업 전,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수업 후에는 친구를 놀리거나 욕하는 것,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 똥똥한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등이 모두 인권 침해이며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금○○: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힘든데 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 전에는 외국인을 보면 놀렸던 내가 부끄럽다. 이제부터라도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박○○: 인권을 사람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인권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넷째,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인식하고, 편견, 차별적 상황에 더욱 민감해졌다. 수업 전,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견, 차별적 상황에도 다소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식하고, 편견이 쉽게 차별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난 후에는 자신이 가진 편견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황보○○: 1학기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2학기에 수업을 듣고는 나도 차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인지 몰랐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원래 장애인들이 차별당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싫어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많이 고쳤다.

다섯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수업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식하고, 편견과 차별의 위험성을 알게 된 학생들은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지만 특히 기존에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9/3. 황○○의 기록〉

오늘 1교시에 다문화에 대해서 배웠다. 나는 다문화 사람을 보면 무시하거나 피하고 버스나 지하철에 같이 타면 냄새 난다고 코를 막거나 그랬다. 수업을 통해 다문화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기록〉

심○○: 다른 나라 사람을 보면 피해 다녔는데 이젠 피하지 않고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흑인도 우리와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했다.

박○○: (수업 후에 고친 것은) 흑인들은 나쁘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주황을 살색이라고 할 때 이 색은 살색이 아니고 연주황이라고 해준 것.

박○○: 전에는 무시하거나 다문화 친구가 먼저 인사해야지 나도 인사했는데 이제는 다문화 친구를 만나면 피하지 않고 인사한다.

전○○: 흑인이랑 백인이랑 같다고 생각하려고 한 적이 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학생)

물론 이 학생들이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깨고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학기 초 설문조사에서 차별적 태도를 보였던 심○○, 위○○, 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금○○ 학생은 학기말 설문지에 ‘생각은 많이 바뀌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도 바꾸고 싶다.’고 적었으며 박○○ 학생은 심층면담에서 ‘(차별하는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안○○ 학생은 흑인에 대한 혐오가 극도로 심

했는데 심층면담에서 ‘이제는 흑인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럿이 있으면 조금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흑인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완벽하게 자신이 가진 편견을 깨지는 못한 것이다.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섯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율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졌다. 학기 초 학생들은 모둠활동을 어려워하였다. 모둠원들 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쉽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모둠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모둠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모둠 토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모둠별로 부과되는 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기말에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심지어 모둠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모둠원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특히, ‘UCC 제작하기’ 같은 사회적 행동을 할 때, 학생들 모두가 처음에는 모둠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주어진 과제를 쉽게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여러 번 접하고 요령이 생김에 따라 모둠원들 간의 역할분담이 알맞게 이루어지고 보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4) 수정·보완된 프로그램

1학기의 실행과 반성을 통해 수정·보완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표6과 같다.

수정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인권에 대한 개념, 지식을 얻는 데 중점을 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와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함께 느끼고 생각해요.’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합쳐 한 프로그램 안에서 지·정·행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차시	주제	세부 활동	활동자료
1	인권의 의미	① 인권의 의미 알아보기 ② 인권의 발전 과정 살펴보기 ③ 세계 인권 선언 알아보기	• 동영상(What's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문) • 4절 활동지 • 풀, 가위, 사인펜 • 그림카드(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2	어린이 인권	① 권리카드 분류하기 ② 권리의 숨은 뜻 알아보기 ③ 권리 점수와 지킴이 점수 비교하기	• 칠판 부착자료 • 4절, 8절 활동지 • 풀, 사인펜 • 권리카드 11장 • 활동지 1, 2
3	어린이 인권	①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 적어보기 ②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 사례 살펴보기 ③ 인권을 침해당하는 어린이들, 인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에게 편지쓰기	• 동영상(축구공 경제학, Don't panic, 시리아 내전 인터뷰) • 4절 활동지, 사인펜 • 편지지
4	장애인 인권	① 신체적 어려움 알아보기 ② 편견으로 인한 불편함 알아보기 ③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하기	• 동영상(지하철 장애인 이동) • 4절 활동지, 사인펜 • 프레젠테이션(장애인 편의시설, 장애를 가진 화가, 아나운서, 교사) • 사진자료(인물사진, 미술작품)
5	장애인 인권	① '낮잠'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동영상(낮잠) • 활동지 • 사인펜
6-7	여성 인권	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문제 살펴보기 ② '그 여자네 집' 시청하기 ③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④ 내가 만드는 '그 여자네 집'(4컷 만화) ⑤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 프레젠테이션(여성인권문제) • 동영상(그 여자네 집) • 개인 활동지 • 모둠 활동지 • 사인펜, A4용지
8-9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권	① '동물농장' 시청하기 ② 영상 내용 이해하기 ③ 내가 만드는 '동물농장'(4컷 만화) ④ 내 행동 되돌아보기	• 동영상(동물농장, 사진 한 장의 의미) • 활동지, 접착쪽지
10	성 소수자의 인권	① 성 소수자의 의미와 종류 알기 ②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생각하기 ③ 응원의 메시지 보내기	• 사진자료(성 소수자들의 사진) • 4절 활동지, 사인펜 • 신문기사(성 소수자 차별문제) • 동영상(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들, 트랜스젠더 문채은, 동성애자들의 프로포즈를 본 10대들의 반응)

11	인권 선언문, 인권 나무 만들기	① 인권 선언문 만들기 ② 인권 나무 만들기	• 1~9차시 활동지 • 8절, 4절 활동지 • 접착쪽지, 유성매직
12	UCC 제작 계획	① UCC 주제 정하기 ② 여러 UCC 감상하기 ③ UCC 제작 방법 결정하기 ④ 스토리 보드 짜기	• 동영상(UCC 예시) • 스토리보드
13-14	UCC 제작 (1)	- 계획에 따라 UCC 제작하기	• 스토리보드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15-16	UCC 제작 (2)	- 계획에 따라 UCC 제작하기	• 스토리보드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17	UCC 감상	① 6모둠의 UCC 감상하기 ② UCC 제작, 감상 소감 나누기 ③ 가장 잘 한 UCC 뽑기	• 동영상(6모둠의 UCC)

둘째, 학습할 필요가 없는 내용과 자료를 제거하였다.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명예살인과 관련된 내용은 2학기 프로그램 내용과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제거하고, 여성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연 차시로 계획하였다. 또, ‘인권 포스터 그리기’는 학생들이 흥미를 그다지 많이 느끼지 않는 활동이었고, 포스터 그리기 외에도 ‘인권 나무 만들기, 인권 UCC 만들기’의 실천적 활동이 있으므로 제거하였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부적절했던 자료,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았던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없었다.

셋째, 각 수업의 마지막 활동을 실천적인 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활동 3에서 ‘~의 인권을 지키기(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수업을 마쳤다. 그 결과 학생들은 머리로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잘 생각해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았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옳은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이 가진 편견을 바로잡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활동 3을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기, 응원 메시지 쓰기, 편지쓰기’ 등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넷째,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내용을 2차시로 통합하였고, 내용에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가정폭력, 임금체불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듣고 역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생겼다. 그래서 가정폭력, 임금체불 등의 구체적인 예시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데 효과가 좋았던 영상 ‘동물농장’과 ‘사진 한 장의 의미’를 시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학습 내용을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2학기의 수업 실행과 반성을 통해 수정된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7.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영역	차시	주제	내용
정체성 확립	1-2	자신의 정체성 정하기	① 정체성의 의미 알아보기 ② ‘악어오리 구지구지’ 읽고 내용 파악하기 ③ 자신의 정체성 정하기 ④ 자신의 정체성 발표하기 및 다양한 정체성 수용하기
사회 변화	3	다문화 사회	① 다문화 사회의 의미 알아보기 ② 역사 속의 다문화 살펴보기 ③ 다문화 사회의 장점 생각하기 ④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 생각하기
다양한 문화 이해	4-5	다른 나라의 문화 (도서관 조사활동)	① 조사하고 싶은 나라 정하기 ② 다른 나라의 문화 조사하기
	6-7	다른 나라의 문화 (문화 소개지 만들기) ※ 미술시간 활용	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소개지 만들기 ② 문화 소개지 전시 및 발표하기
	8	우리나라의 문화	① 우리 문화의 특징 알아보기 ② 우리 문화의 장점 찾아보기 ③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우리 문화 소개하기
	9	‘문화’의 이해	① 문화의 의미 알아보기 ② 문화의 특성 알아보기 ③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

다양한 문화 이해	10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	① 일상문화의 의미 알아보기 ② 주변의 일상문화 생각해보기 ③ 나의 문화 지도 만들기
	11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① 명예살인, 여성할례에 대해 알아보기 ② 모둠 토론하기 ③ 토론 결과 발표하기
편견·차별 인식	12	편견과 차별	① 편견, 차이, 차별의 의미 알아보기 ② 우리 주변의 편견 생각해보기 ③ 편견의 위험성 알아보기
	13	편견을 다르게 생각하기	① 내가 가진 편견 생각해보기 ②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생각해보기 ③ 편견을 다르게 생각해보기
	14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 1	① 피부색으로 사람을 가를 수 없다는 것 알기 ② 내가 가진 편견 생각해보기 ③ 내가 가진 편견의 잘못된 부분 찾아보기
	15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 2	① 한국인을 차별하는 영상 시청하고 느낌 나누기 ② 편지를 쓰기 위한 개요 작성하기 ③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16-17	차별 금지 포스터 만들기 ※ 미술시간 활용	①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② 모둠 토의하기 ③ 포스터 그리기
	갈등 상황 해결	18-19	갈등상황 해결하기 1
갈등 상황 해결	20-21	갈등상황 해결하기 2	①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기 ② 종교와 관련된 갈등상황 제시하기 (이슬람 종교의 규율과 관련한 갈등상황) ③ 역할극 준비하기 ④ 역할극 발표하기
	22-23	갈등상황 해결하기 3	① 별별이야기2 '사방사방 사랄라' 시청하기 ② 다문화 가정 친구와의 갈등상황 제시하기 ③ 역할극 준비하기 ④ 역할극 발표하기
사회적 행동	24	계획 세우기	• 배운 내용을 실천할 방법 생각하기 • 생각한 방법에 따라 실행계획 세우기

사회적 행동	25- 26	준비 및 실행하기 1	• 사회적 행동을 위해 사전 준비하기 및 실행하기 (벽보 만들기, 피켓 만들기, UCC 찍기 등)
	27- 28	준비 및 실행하기 2	• 사회적 행동을 위해 사전 준비하기 및 실행하기 (벽보 만들기, 피켓 만들기, UCC 찍기 등)
	29	느낌 나누기	• 활동 후, 느낌 나누기 및 자기반성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학습내용을 수시로 조정하였기에 프로그램 순서나 내용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변화된 내용이 있다.

첫째, ‘다문화 사회’ 주제의 학습 내용이 수정되었다. 기존에는 다문화 사회의 의미, 국제결혼여성과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본 후, 다문화 사회의 장점과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를 생각해보는 흐름으로 수업이 전개되었었다. 이렇게 수업을 하였을 때, 1학기 수업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국제결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내용을 ‘역사 속의 다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학생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약했던 외국인들과 역사 속의 다문화적 상황을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다문화 국가’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미디어’ 주제를 삭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14차시 동기유발로 사용한다. 기존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미디어’ 주제에서는 대중매체에서 발견되는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흐름으로 수업이 전개되었다. 이 수업을 실제로 해 본 결과, 활동 자체의 의미는 있었으나 예능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미디어에서의 편견은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나 초등학생에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간단하게 14차시 동기유발로 활용한다.

셋째, ‘갈등상황 해결하기’에 6차시를 배분하고 실생활에서 겪을 법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인종차별, 식생활에서의 갈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갈등, 다문화 가정 자녀와의 갈등' 이렇게 네 가지 갈등을 다루었고, 이 주제에 총 5차시를 배분했었다(각각 1차시, 다문화 가정 자녀와의 갈등 2차시 배분). 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역할극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배경지식과 상황 이해를 위해 1차시, 역할극을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1차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역할극 수업을 2차시로 조정하였고, 갈등상황을 3개만 제시하여 총 6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역할극에서 제시했던 상황보다 학생들이 현재 혹은 미래에 겪을 법한 상황으로 갈등상황을 바꾸었다. 구체적으로 '채식주의자와의 갈등, 이슬람 종교 규율과 관련한 갈등, 다문화 가정 친구'와의 갈등이다.

6.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적응교육보다 '다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다문화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재의 부재로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며, 그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늘어나고 있어 추후 학생들이 겪는 다문화적 갈등과 차별적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과 문화적·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다문화교육은 ‘인권’과 ‘반편견·반차별’ 교육의 두 가지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 연구 학급의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인권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이자 통합성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학기에 인권교육을 실행하였다. 이어 2학기에는 문화적·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반대, 금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반편견·반차별교육을 실행하였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은 1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연구학급의 학생들에게 여섯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인권, 편견, 차별, 다문화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인식하고 편견, 차별적 상황에 더욱 민감해졌다. 다섯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여섯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율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졌다. 또한 본 연구자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행과정에서의 반성을 통해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시 소재의 A 초등학교의 한 연구학급에서 한정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 다른 학급에 적용해보았을 때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자료 선택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제 학급에 적용해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 고학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연구학급에 적용했으며,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인권’ 함양 교육은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존중하여야 하는 이유를 ‘인권’차원에서 찾고 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 학생들도 인권의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반편견·반차별교육에서 주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내용에 집중하여 성, 장애, 종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놓칠 가능성이 높는데 인권교육을 통해 인종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수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도 이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편견의 정도가 심하여 편견 극복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가진 편견을 극복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를 통해 ‘편견’은 초등 저학년 혹은 그 이전에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된 편견은 교육적 노력 없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일단 편견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해 편견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면 초등 고학년에서 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맞는 ‘다문화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문화교육 자료를 찾는 것과 학교 업무, 일반 교과 수업준비, 학생 생활지도를 모두 해 나가면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문화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수업 준비 외에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교사입장에서는

사실 다문화교육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장기간의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또한 지금처럼 여러 교과 속에 다문화교육 내용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하나의 체계를 갖춘 연속적인 다문화교육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질의 자료가 보장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교과서 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영·소경희, 2011, 국내 교육관련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동향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12(3), 197-224.
- 구정화·송현정·설규주,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미, 2003, 중등 사회과교과서에 나타난 한·중·일 관계 분석: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42(1), 109-127.
- 박찬석, 2010, 다문화사회정의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접목, 도덕윤리과교육, 30, 135-158.
- 서강식·장원순, 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내용 체계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어석원, 2011, 인권감수성과 다문화인식 상관관계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석·고기복·오성배·신은주·박천웅, 2011,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오름.
- 유병열, 2011, 초등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현황과 문제 및 개선 발전의 과제와 방향, 한국초등교육, 22(3), 89-111.
- 이경은, 2011, 통합교과를 활용한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숙, 2001,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17(2), 381-408.
- 이종태·조난심·나병현·구정화·송현정·이은규, 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 장원순, 2003, 다문화교육에서 합리적인 문화이해와 성찰의 방법, 초등사회과교육, 15, 175-193.
- 장원순, 2004,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성격과 방법, 사회과교육연구, 11(2), 191-210.
- 전세경·박찬석·장원순·한명숙, 2010, 학교 다문화교육 지도를 위한 초등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배재대학교 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사업(자율과제).
- 정해숙·박성정·구정화·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병완, 2012, 도덕과에서의 반편견교육: 사회 정체성 관점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8, 111-132.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경기: 교육과학사.
- Banks, James A.,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7판, 차윤경·부향숙·윤용경 공역, 2014, 서울: 박학사.
- Bennett, Christine I, 2006,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다문화교육-이론과 실제-, 김옥순·김진호·신인순·안선영·이경화·이채식·전성민·조아미·최상호·최순중 공역, 2011, 서울: 학지사.

2016.6.2 투고일, 2016.6.14 심사일, 2016.6.22 게재확정

The Action Research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5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 Focusing on human rights, anti-bias education -

Bo-Ra Seo* · Chan-Seok Park**

Abstract_This study starts from the idea that getting students to acquire multicultural awareness is more important than providing adjustment education to multicultural students for the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bserve educational changes of students, to present one method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upper grades, and to suggest better ways of multicultural education..

Nowadays, Korea rapidl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Also, students who are differ from race, gender, religion, etc. live together in school. In these situations, multicultural education is required to get along with them. However, lacks of textbook, material and progra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ake teachers be indifferent to practice this education. So, this progra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5th graders and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hat students can adapt the changing society and learn how to respect others from different culture and race groups.

In this study, multicultural education was practiced in two ways: Human rights and Anti-bias. Human rights education was practiced in first semester to have students get a concept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It was followed by the anti-bias education, which was carried out in second semester to have students be aware of diversity, bias and discrimination. To educate the students in the human rights and the anti-bias effectively, three programs were developed and twenty-six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participated in this

* Daejeon Maebong elementary school, Teacher, Multi-cultural Education, sbrz6646@nate.com

**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Moral Education, pcksmky@hanmail.net

study for 1 year.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After the students had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y got a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y could recognize their own bias and discriminate behaviors. Also they tried hard to decrease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started from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Third, the text book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s needed for systematic and long term education.

Keywords_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Human Rights Education, Anti-bias Education, The Upp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